

황방산 민간인 희생자 유해 100여 개체 추가 발굴

지역 출판인 양성 '전주 출판학교' 운영

전주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3차 유해발굴 유가족 현장공개회·중간보고회 가져

한국전쟁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전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유해가 잠든 황방산에 대한 유해 발굴을 통해 100여 개체의 유해가 추가 발굴됐다.

이는 지난 1·2차 조사에서 확인된 유해 78여 개체보다 많은 것으로, 전주시는 발굴조사가 완료된 이후 감식 및 유품 정리를 거쳐 세종추모의 집에 유해를 안치할 예정이다.



한국전쟁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전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유해가 잠든 황방산에 대한 유해 발굴을 통해 100여 개체의 유해가 추가 발굴됐다.

시는 지난 16일 효자동 황방산 유해 발굴 현장에서 전주대학교 박물관 조사팀과 자원위원, 유족회원, 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3차 유해발굴 유가족 현장공개회 및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유해발굴 조사를 맡은 박현수 전주대학교 박물관 학예실장으로부터 효자동 황방산 유해발굴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진행과정 등을 논의했다.

이번 조사 결과, 황방산 유해매장 추정지에서는 3월의 구상유구와 수월 3기, 2차 매장지 3곳 등이 확인됐으며,

총 100여 개체의 유해가 발굴됐다. 3월의 유해매장 구상유구 내부에서는 신발과 안경, 단추 등의 다양한 유류품이 출토됐고, 유류품과 함께 희생자의 주변에서는 MI소총 탄피와 칼빈 소총 탄피 등 당시 군인 또는 경찰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무기류도 같이 발견됐다.

특히 단독으로 매납된 수혈을 통해서도 학살 당시 희생자의 모습을 유추

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됐다. 이번 발굴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9년부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발굴조사 및 전수조사 등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2019년과 2020년 1~2차 발굴조사를 통해 효자동 황방산에서 확인된 유해 78여 구를 발굴해 세종추모의 집에 안치했다.

이번 발굴조사를 맡은 박현수 전주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긴 구를 골라내고 학살 후 매납하는 행위는 일정한 계획에 의해 학살이 자행되었음을 보여준다"며 "일부 구덩이를 통해 학살 전후 상황 등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에 맞춰 과거사 정리 및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해 안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출판인 양성 '전주 출판학교' 운영

시, 7월 10일~8월 28일 총 8차 걸쳐 출판 관련 교육

선시대 출판산업이 이끈 완판본의 도시 전주에서 출판문화의 맥을 이어 나갈 출판인을 양성하기 위한 '2023 전주 출판학교'가 운영된다.

전주시는 그동안 운영한 전주 서점학교에 이어 오는 7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다목적강당 및 신아출판사에서 '2023 전주 출판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전주 출판학교는 출판기획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총 8차시에 걸쳐 출판 관련 내용을 전반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강의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은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의 출판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 챗GPT 시대의 출판을 알아보는 여는 강의를 시작으로, △김정환 에디터스랩 대표 △서영훈 신아출판사 대표 △이승훈 한국출판경영연구소장 △백창민 북헌터 대표 △김현호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장이 각각 맡는다.

또한 전주 출판학교만의 특별한 과

정인 '인쇄 및 제작 과정'도 운영된다. 이 강의는 전주의 오래된 출판역사를 함께하고 있는 신아출판사에서 진행되며, 수강생들이 직접 인쇄공장을 견학하며 현장감 넘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전주 출판학교에는 1인 출판 및 출판업을 준비하는 예비 출판 창업인, 출판업 관계자 등 출판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19일부터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www.jonju.go.kr)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30-1843)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수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완판본의 도시인 전주의 명성에 걸맞게 출판문화 육성을 위해 새롭게 전주 출판학교를 기획하게 됐다"면서 "1인 출판과 독립출판이 대세가 되어가는 요즘, 출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예비 출판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마을 공동체 삶 기록 사진 '최우수 기록물' 선정

전주 착한가격업소 '초희미용실' 행안부 장관 표창 수상

제12회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서 이영옥 씨 기증 용전마을 사진

마을 공동체의 고난 극복 현장과 주민의 일상을 담은 140여 점의 기록 사진이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기록물로 평가됐다.

전주시는 지난 3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리 마을의 기록을 찾습니다.'를 주제로 진행된 '제12회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에서 이영옥 씨가 기증한 140여 점의 용전마을 기록 사진을 최우수 기록물로 선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획 주제인 '마을' 부문과 공동 주제인 '전주' 부문 등 2개 분야로 진행됐다. 먼저 '마을' 부문에서는 1980년대 용전마을(삼례읍 하리) 사진이 심사위원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총 144장의 사진에는 1980년대 흉수로 인해 마을 다리가 붕괴됐을 때 주민이 함께한 복구 작업과 사계절 씁 없는 농사 현장, 만경강 고기잡이 등 마을 공동체의 일상과 삶의 기록이 담겨있다.

또한 '전주' 부문에서는 1952년 전

주 시가행진 사진과 1950년부터 50년 동인의 교과서 120여권이 최우수 기록물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유석영 씨가 기증한 1952년 전주 시가행진 사진은 당시 전주 변화를 중심으로 학생과 군인 등이 동원된 시가행진 사진으로 희소성이 매우 높은 자료이다. 1952년 11월 29일 당시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 당선인의 방한을 기념해 6.25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환영 행사가 펼쳐진 바 있다.

이외에도 이번 공모전에서는 △마을에서 치러진 조부상 부고장과 봉투(1965년) △1971년 계룡리 합곡(기잡놀이) 부활 선포식 사진 △1967년 전주야사 △1974년에서 2007년까지 교직 생활 당시 급여 봉투와 명세서 일체 △1960년대 전주 계림 화학 닭 표 성냥 △1971년 전주 최초 아파트인 시민아파트 사진 등 전주의 시대상과 생활상을 반영하는 박물관, 사진, 문서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 자료가 수집됐다.



1950년부터 2000년까지 50년 동인의 교과서

시는 기록물 기증자에게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기증보상금(은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중히 간직해 온 개인의 유산을 전주시의 기록으로 기증한 시민에 대한 예우와 기증문화 확산 차원에서다.

공모전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향온합승과 소방시설 등 보존 설비가 갖춰진 전주시민기록관(경천로 264)에 보관되며, 수집 자료 중 일부는 기록관 1층 보이는 수장고를 통해 보존 전시될 예정이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주시민기록관을 통해 시민의 삶이 담긴 전주의 기록을 찾아 기록의 가치를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착한가격업소인 평화동 '초희미용실' (대표 박순란)이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착한가격업소 우수업소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대표메뉴 및 가격은 커피 8,000원, 파마 2만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은 고물가 시대에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한 착한가격업소를 격려하고 물가 안정 유공을 치하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정기간과 메뉴의 평균 가격,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 평가해 총 5명의 수혜 대상자가 결정됐다.

착한가격업소 우수 업소 표창 수여



시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창실 행정안전부 차관과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 김광휘 지역경제지원관, 표창 대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표창 및 지원 판별 수여, 간담회,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 의료사업 현장 점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남숙 의원)가 지난 16일 의료사업 현장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남숙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시설 상태와 수행사업 현황을 살피고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센터는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장애인의 응급상황을 파악해 대처할 수 있도록 가정 내 설치 장비 관리 및 안전 확인을 담당하고 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난달 의



료법인 인산의료재단으로 위탁기관이 변경됐으며, 중독 조기발견 및 중독 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든든한 토대"라며 "전주에 맞는 적절한 사업 추진과 꼼꼼한 운영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